

# 장백산천지

제 150 호

2009 년 9 월 4 일

금요일

## 후회없는 인생

김국(金菊)은 산둥성의 한



빈곤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95 년, 김국은 온몸이 마비되어 좀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각지로 다니며 명의를 찾아 치료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김국은 1996 년에 “전법륜” 책을 읽고 나서 “쩐싼런”을 수련하기 시작하여 한달도 안되어 온몸이 환골탈퇴된 것처럼 가볍고 령활했다.

1999 년 4 월 25 일, 중공은 음모를 꾸며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하자 그는 런공자유와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무원 래빈래신사무실에 상방했고 7 월 20 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자 그는 여러 번 체포되어 모진 박해를 받았다. 2004 년에 캐나다로 피난온 김국은 이렇게 말했다. 《파룬대법은 나를 고난속에서 구해줬을 뿐만아니라 마음을 정화시켜주었고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으며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내가 왜 인간세상에 왔는가? 고난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수련하여 생명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대법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세인들을 도와 진상을 알게 하여 공산악당에서 리탈하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이룩하고 있다.》

## 홍콩에서 공개되당한 인민일보 기자 구명위



중공의 박해를 받고 홍콩으로 피난온 인민일보 기자 구명위(邱明伟)는 지난 8월23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되당하고 중공폭정을 질책했다.

## “3 퇴”를 성원한 뉴욕 승합차순회활동

지난 8 월 15 일, 16 대의 승합차로 구성된 순회 차대열은 미국 뉴욕 플래싱에서 출발하여 5 천 8 백 9 십만명이 “3 퇴” (퇴당, 퇴단, 퇴대) 함을 성원했다.



## 일본파룬궁학원들이 반박해시위행진을 거행

지난 8 월 22 일, 일본 파룬궁학원들은 간사이 오사카와 코베에서 진상을 이야기하고 반박해시위행진을 거행



했다. 수많은 간사이민중들은 이를 통해 파룬궁을 리해하고 중공의 박해진상을 료해하게 되었다.

## 워싱턴에서 절찬을 받은 신운뉴욕예술단



지난 8 월 25 일 저녁 신운뉴욕예술단은 미국 수도 워싱턴 케네디중심에서 서막을 열어, 미국국무원, 국방부, 교육부, 국토안전부, 자원부 등 행정부문과 미국련방참의원, 미국련방중의원, 미국주재외국대사관, 외교관원, 사교계 명류, 영화예술계인사, 회사 총재, 변호사, 법관 등 1 천여명 미국주류인사들의 절찬을 받았다.

# 생명의 피안 (彼岸)

## □ 글/커로

마크는 나의 친한 친구이다. 내가 어려움에 부딪칠때마다 그는 늘 나를 도와주곤했다.

어느날, 나는 마크가 갑자기 세상뜨게 될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그가 뇌암말기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한주일 넘기기가 어려워 생명의 “등불”이 재차 그를 깨우쳐 주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친구들이 달려와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나서 눈물을 흘리며 고별했다. 그런데 한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밥 한술도 먹지 않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은 생명이 어찌하여 마지막 순간을 이처럼 유지할 수 있을까?



24 시간내에 그가 세상을 뜰거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나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S 시에 그의 집으로 한숨에 달려갔다. 나를 놀라게 한것은, 전부 지각을 잃었던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갑자기 《오, 자네가 끝내 왔군!》 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안해는 막상 소리치려는 자기 입을 막고서 《아! 하느님 맙소서, 그의는 줄곧 정신이 똑똑했어요! 그는 여태껏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그의 안해더러 안정하라고 했다. 《마크, 무엇이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견지하게 했는가?》 내가 다 잡아 묻자 그는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나를 감동시킨 한탄락의 경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난 거기에 갔댔네. 생명이 결속된 후 매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르네. 내가 먼저 간곳은 해빛도 없고 밤도 없는 그저 대낮같은 곳이었네. 거기엔 아무런 말소리도 없었지만 온화한 음악이 있었네. 사람들은 서로 보면서 말하지 않았고 이곳과 같지 않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지지 않았으며 생명은 영원했네. 나는 우연하게 길을 잃고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네. 이것은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기때문이었다. 내가 한참 주춤거리고 있을 때 분명 들었네. <당신이 가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는 소리를. 나는 무척 남고 싶었지만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나의 덕행이 모자라기에 난 끌어앉아 마음속으로 <하늘의 아버지시여, 난 사람이 사는 구역에서 뛰쳐나와 지금은 진퇴량난이입니다. 저를 이끌어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네. 그곳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있었네. 하지만 난

마음속으로 알았네. 모든것은 조물주손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손에 땀을 쥐었다. 눈앞에 벽시계추가 왔다갔다 흔들면서 나에게 실제적인 물질공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을 거였다. 《그후에는?》 내가 묻자 《어둠속에서 난 마음속의 말을 하기 시작했네. <오늘 생명은 마지막까지 오게 되고 인간세상 모든 것이 죄다 재빨리 결속된다. 업력을 받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은 해탈된다. 지난날 하늘만큼 크게 여기던 일들은 더

는 중요하지 않고 시간도 나를 다시는 속박하지 않으며 진실과 거짓말의 선택에서 다시는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속의 말을 해야한다. 나의 인생은 살아서 자유롭지 않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 입을 열어 말하면 모두가 거짓이 되고 세수하고 수염을 깎을때 가면구를 보게 되며 저녁에 집에 돌아온후 사는것이 화장을 지워버린 어리광대와 같다. 내 몸을 묶어놓은 밧줄을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난 끌리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참 고생스럽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알게 되었네. 원래 이 생명은 나에게 속하고 내가 통제하고 지배해야한다는 것을. 난 1 분 1 초도 랑비하지 말고 마음에 어긋나거나 자신에게 미안한 짓을 하지 말아야한다.……>》

몇시간이 지난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 “똥싼런”미술전람회가 진주시에서

지난 8 월 11 일 오후, 한국 진주시부시장, 시의회 의장, 정도생활운동진주시협의회 회장, 진주시미술협회 회장, 각 지역 인사들이 “똥싼런”미술전람회 개막식에 참가하여 열렬한 환영을 표시했다.

